인쇄회로기판 시장“ 풍년"

전자경기 회복따라 … 향후 2 3년 20%대 성장 유지

국내 인쇄회로기판 업계가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의 따르면, 90년대 들어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침체국면을 보이던 인쇄회로기판 시장이 92년말을 기점으로 엔고의 영향과 전자산업의 경기회복, 적극적인 수출지향 정책으로 인해 활황국면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내 인쇄회로기판 시장은 93년대비 20% 이상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품의 특성상 전자산업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쇄회로기판 시장은 90년들어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92년말을 기점으로 엔고 등에 힘입어 또다시 활황국면을 맞고 있다.

국내 PCB 매출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1993	1994(전망)	증감률
대 덕 전 자	642	750	16.7
대 덕 산 업	571	650	13.8
코리아써키트	394	510	29.4
새 한 전 자	140	180	28.4
한일써키트	111	130	16.9
우 진 전 자	102	120	17.5

국내 인쇄회로기판 생산기업으로는 대덕전자, 대덕산업, 코리아써키트, 새한전자, 한일써키트, 우진전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대덕전자, 코리아써키트, 한일써키트, 우진전자 등은 주로 산업용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고 대덕산업, 새한전자 등은 민생용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3년 매출액은 92년대비 52.6% 늘어난 5770 억원으로 나타났으며, 94년에도 20% 이상 신장한 7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인쇄회로기판산업은 경기회복 등으로 신장세가 당분간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수출도 미국의 수요증가와 관련기업들의 수출확대 정책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저가품을 중심으로 대만 · 중국 등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채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인쇄회로기판산업은 단순조립가공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에서는 미국 ·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관련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로 고부가치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며 핵심부품의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12/26>